



김 우 식  
부총리겸 과학기술부 장관

우리나라 고분자과학과 기술의 핵심적인 역할을 해 온 한국고분자학회의 창립 30주년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고분자는 현대 산업에서 가장 중요한 핵심소재 중의 하나로서 전 세계적으로 그 사용량이 점점 증가하고 있습니다. 특히 21세기에 들어 고분자소재는 나노기술(NT), 바이오기술(BT), 정보·전자기술(IT) 및 환경기술(ET)은 물론, 항공·우주용 소재로부터 자동차 소재, 각종 산업용 소재와 생활소재에 이르기까지 우리나라 과학 및 산업발전을 위한 성장동력의 한 틀을 이루고 있다고 믿고 있습니다.

지난 30년 동안의 짧은 기간에 이룬 한국고분자학회의 눈부신 성장과 발전은 역대 회장과 임원들의 헌신적인 봉사뿐만 아니라 회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가 있었기에 가능하였을 것입니다. 한국고분자학회는 회원수와 정기 학술대회 발표논문수 측면에서도 국내의 대표적인 학회의 하나이며, 국내·외로 많은 우수한 논문을 발표하면서 국제 고분자학회에서도 그 위상이 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고분자산업은 한국고분자학회의 창립과 함께 크게 성장하였다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1970년대부터 울산석유화학 공업단지를 시점으로 여천석유화학 공업단지, 대산석유화학 공업단지 등이 건설되어 국가 산업발전의 근간을 이루어 왔으며, 대학에서도 고분자관련전공도 두드러지게 증가하였으며, 매년 많은 전문 인력이 배출되어 우리나라 산업현장의 요소요소에서 국가발전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본인은 그동안 여러 차례 “국가경쟁력은 곧 과학기술경쟁력”이라고 과학기술의 중요성을 강조하여 왔습니다. 현재 국제적 흐름에 비추어 볼때, 보다 창조적이고 혁신적인 과학기술의 확립이 요구됩니다. 우리들 후세에게 물려줄 부끄럽지 않은 과학기술의 확립을 위하여 21세기 지식기반 사회를 이끌어 갈 우수한 과학인재들을 잘 양성시키는 것도 우리들의 몫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학계, 연구소 및 산업계에 종사하는 모든 고분자 인들이 고분자과학 및 기술 개발의 활성화에 더욱 매진하여야 하겠습니다. 선택과 집중을 통하여 비교우위에 있는 핵심기술을 갖고 닦아 경쟁력이 높은 기술로 개발하는데 주력해야 할 것입니다. 이러한 노력의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정책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다시 한 번 한국고분자학회 창립 30주년을 맞이하여, 그동안 과학 발전에 앞장 선 여러분들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앞으로 고분자과학과 기술의 선진화 및 글로벌화에 이바지할 회원 여러분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채 영 복

한국과학기술단체총연합회 회장

30세 건장한 청년의 모습으로 성장한 한국고분자학회의 서른 번째 생일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1976년 KIST에서 180명이 모여 창립 대회를 가진 한국고분자학회가 30년 만에 회원 수 2,600명에 달하는 건실하고 훌륭한 학회로 성장한 데에는 역대 회장과 임원들의 헌신적인 봉사와 회원 여러분의 자발적인 참여가 있었기에 가능했으리라 생각합니다.

화학이 모든 과학기술의 중심이 되는 분야라면 고분자화학은 그 중에서도 우리 일상생활과 가장 깊은 관련을 맺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고분자화학은 이미 인간의 풍요로운 삶에 어느 분야보다도 크게 공헌하였고, 앞으로 더 큰 성장 잠재력을 갖고 있는 분야입니다.

우리나라는 비교적 일찍 섬유산업이 발전을 이뤘고, 여기에 후발 석유화학공업 등이 급속한 발전을 하면서 고분자 산업이 국가발전의 근간을 이루었습니다.

1970년대 울산 석유화학단지 건설을 시작으로 1980년대에 여천 석유화학단지가 완성되었고 1990년대는 대산 석유화학단지가 건설되었습니다. 1970년대 이전까지만 해도 전량 수입에 의존하던 고분자 재료 범용수지를 25년 만에 연간 840만톤 이상 생산하여 이중 40%를 수출하는 생산량 세계 5위의 위치로 성장하였습니다.

이렇듯 우리나라 석유화학공업, 특히 고분자 재료 산업부문이 빠른 시간 내에 큰 성장을 이룰 수 있었던 바탕에는 기초학문분야로서의 고분자화학의 발전에 힘입은 바가 크다고 생각합니다. 다시 말해서 한국고분자학회의 공이 매우 크다 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한국고분자학회는 다른 어떤 학회보다도 산·학·연·관의 협력을 모범적으로 이뤄낸 학회입니다. 국제적 위상도 높아져서 이미 10여 년 전에 ICSM 94나 IUPAC MACRO SEOUL 96 등 대규모 국제학술대회를 유치하여 전무후무할 정도로 성대하게 치러낸 자신감도 갖고 있는 학회입니다.

지난 30년 간 노심초사 한국고분자학회를 이끌어 온 역대 임원진과 고분자분야의 학문과 기술발전을 위해 헌신적으로 노력해 온 회원들의 노고에 다시 한 번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앞으로 더욱 큰 발전을 거듭하여 국내 타 학회의 모범이 됨은 물론 국제적으로도 첫째가는 훌륭한 학회가 되어주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정 근 모  
한국과학기술한림원 원장

한국 고분자 과학과 기술 발전의 모태로서 주요 역할을 해 온 한국고분자학회의 창립 30주년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고분자산업은 한국석유화학산업 발전과 그 궤를 같이 하여 국가 기간산업으로서 가장 중요한 핵심소재 중의 하나로서 전 세계적으로 그 사용량이 점점 증가하고 있습니다. 특히 21세기에 들어 고분자소재는 나노기술(NT), 바이오기술(BT), 정보·전자기술(IT) 및 환경기술(ET), 문화/콘텐츠기술(CT)은 물론, 항공·우주기술(ST) 소재로부터 자동차소재, 각종 산업용 소재와 생활소재에 이르기까지 없어서는 안 될 핵심소재라고 믿고 있습니다. 본인은 과학기술관련 정부 부처 및 학교에서 활동을 했었기 때문에 중화학공업의 한 축으로 고분자 산업 발전을 지켜봐 왔던 만큼 고분자 산업 발전에 대한 감회가 깊습니다.

지난 30년 동안의 짧은 기간에 이룬 한국고분자학회의 눈부신 성장으로 회원 3,000명/년과 매년 학술대회에서 2,000여편 이상의 논문이 발표되고 있다는 사실에 놀라움을 금할 수 없습니다. 특히, 우리 한국과학기술한림원 회원으로 봉사하고 있는 역대 회장님들과 회원들의 헌신적 봉사로 국내·외적으로 훌륭한 학회로 자리를 잡게한 노고에 대하여 치하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분명 21세기는 국가적 차원에서 신성장 동력을 발굴하여야 치열한 국제 경쟁력을 갖출 수 있으리라 판단됩니다. 1명의 천재가 1,000만 명의 먹거리를 창출하는 두뇌의 시대가 도래하고 있으며, 과학기술의 중요성을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을 것입니다. 이러한 측면에서, 앞서 말했듯이 6Ts를 아우를 수 있는 석유화학산업에 기초를 두고 있는 고분자산업 분야의 창조적이고 혁신적인 과학기술의 확립이 요구됩니다. 이를 위해서는 산·학·연의 고분자 산업에 종사하고 있는 과학 기술자들 뿐만 아니라 민관이 하나 되어 고분자과학 및 기술 개발의 활성화에 더욱 매진하여야 하겠습니다.

다시 한 번 한국고분자학회 창립 30주년을 맞이하여, 선두에서 많은 노력과 정열을 받쳐 고분자과학 기술 발전에 앞장 선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앞으로 고분자과학과 기술의 선봉장이 될 회원 여러분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이 철 수

한국화학관련학회연합회 회장

한국화학관련학회연합회 회원인 한국고분자학회가 올해 창립 30주년을 맞이하게 된 것을 축하드립니다. 그리고 연합회회장으로서 축하의 말씀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고분자와 고분자학회에 대한 제한적인 지식을 가지고 있는 제가 쉽게 알 수 있는 것은 다양하고 새로운 고분자물질들이 우리 생활과 산업의 발전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는 것과 한국고분자학회가 질과 양적인 면에서 비약적인 발전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 여건으로 볼때 이러한 기여와 발전이 현재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미래에도 계속될 것이고 한국고분자학회가 그 중심에서 역할을 다 할 것으로 믿습니다.

현대 산업과 학문의 한 특징이 융합적 성격을 갖는다는 것은 잘 알려져 있습니다. 과학과 공학의 여러 분야가 고분자와 관련되어 있습니다. 한국고분자학회 회원들은 물론 한국화학관련학회연합회의 회원인 대한화학회, 한국공업화학회, 한국세라믹학회, 한국화학공학회 회원 중에도 한국고분자학회 회원이거나 회원이 아니더라도 이에 관한 일들을 하고 계신 분들이 계실 것입니다. 마침 차기 화학관련학회연합회 회장은 한국고분자학회에서 맡게 되어 있습니다. 고분자 기술의 학문과 산업적 발전을 위하여 한국화학관련학회연합회도 함께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한국고분자학회의 발전에 기여하신 역대 회장과 임원진의 노고를 치하하며 앞으로 한국고분자학회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이 은  
대한화학회 회장

대한화학회 회장으로서 한국고분자학회 창립 30주년을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대한화학회와 한국고분자학회는 많은 회원들이 중복 가입하여 있는 형제 학회입니다. 두 학회는 한국화학관련학회연합회에 함께 소속되어 화학-고분자학의 발전에 협력하고 화학 관련 산업의 진흥을 통하여 국가 발전에 기여하는 공동의 목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돌이켜 보면 건국 후 우리가 한 세대 동안 이룩한 물질적인 발전은 인류의 역사상 그 예를 찾기 어려울 만큼 경이적인 것이었습니다. 우리처럼 빠른 속도로 경제 발전을 이룬 국가를 찾을 수 없습니다. 경제 발전의 토대는 “과학입국”이었습니다. “과학입국”이 국가적 과제였고 어린이들의 대다수가 과학자가 되는 것이 꿈이었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이 시절 교육 받은 현재 50대 이상의 세대에서는 가장 우수한 그룹이 화학공학을 전공하였고 화학도 인기 전공에 속했었습니다. 국가 최고의 엘리트집단이 화학과 고분자학을 전공하였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현실을 직시하면 화학-고분자학 분야도 “이공계의 위기”에서 자유로울 수 없는 것을 절감하게 됩니다. 따라서 이제 국가의 장래를 책임질 젊은 세대에게 미래의 화학과 화학의 미래를 설명하고 다시 화학의 꿈을 찾아 주는 일이 우리 모두에게 당면한 가장 중요한 임무가 되었습니다.

다행스럽게 정부는 2006년을 “화학의 해”로 지정하였습니다. 이공계의 위기를 극복하려는 노력이 절실한 지금, “화학의 해” 사업 지원은 매우 시기적절한 조치라고 생각합니다. “화학의 해” 사업은 화학의 중요성을 사회와 일반 국민에게 알리는 것을 목표로 하고 특히 자라나는 세대를 중심으로 진행될 것입니다. 행사들을 통하여 대중들이 가지고 있는 화학의 부정적인 이미지를 바로 잡고, 화학이 기초 과학의 중심 분야이고 현대 문명의 필수적인 기술이라는 것을 알려야 하겠습니다. 화학이 발전해야 국가가 발전한다는 진리를 널리 알려야 하겠습니다.

진정한 선진국은 학문으로의 화학이 발전하고 고부가가치의 화학 산업을 가진 나라입니다. 대한화학회와 한국고분자학회가 대한민국을 선진국으로 함께 이끌 것입니다.



문 상 흡  
한국화학공학회 회장

창립 30주년을 맞이하는 한국고분자학회의 회원 여러분에게 한국화학공학회를 대표하여 깊은 축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나라의 화학 산업은 그동안 석유화학을 중심으로 꾸준히 발전하여 에틸렌 생산 능력은 세계 4위(2002년 기준), 합성수지의 생산규모는 세계 3위에 이르고 있습니다. 따라서 오늘날 거의 모든 화학제품의 기초 원료가 되는 고분자의 중요성도 우리나라의 화학 산업 발전과 더불어 크게 증가하였습니다. 앞으로 고분자는 전통적인 화학 산업 외에도 정보 산업과 신 에너지 기술의 핵심 재료로 쓰이고, 또한 나노 소재 및 생명 산업의 발전에도 필수적인 요소가 되면서 그 중요성이 더욱 확대될 것입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고분자는 이를 구성하는 원료의 조성 외에도 합성 조건, 타 물질과의 혼합 비율, 표면 처리 및 가공 조건 등에 따라 그 특성이 다양하게 변화합니다. 따라서 고분자 학문과 기술의 발전은 화학, 물리, 재료, 화학공학, 기계공학과 같은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이 함께 모여 학술정보를 교환하고 공동 연구를 수행함으로써 달성할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30년 전에 이미 이와 같은 고분자 학문의 특성을 이해하고 독립된 학회를 창립함으로써 과학자와 공학자가 함께 모여 학술 교류를 할 수 있는 터전을 만드신 선배 학자님들의 선견 지명에 깊은 경의를 표합니다. 아울러 한국고분자학회가 그동안 학문과 기술의 발전에 있어서 중추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애써주신 역대 회장님과 임원 여러분들에 대하여도 찬사를 보냅니다.

오늘날의 학문은 기존 학문 분야 간의 긴밀한 상호 교류를 통하여 발전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한국화학공학회는 이미 그동안 해 온 것처럼 앞으로도 한국고분자학회와의 긴밀한 협조 관계를 유지하면서 우리나라의 고분자 산업 내지는 화학 산업 전체의 발전을 위하여 노력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한국고분자학회의 창립 30주년을 축하드리며 학회가 앞으로 더욱 발전하기를 기원합니다.



강 태 진  
한국섬유공학회 회장

한국고분자학회가 창립 30주년을 맞이함을 진심으로 축하드리며, 그동안 학회의 발전을 위해 노력을 아끼지 않으신 역대 학회 임원들과 회원님들의 열정과 노고에 한국섬유공학회를 대표하여 존경과 치하의 말씀을 전합니다.

한국고분자학회는 1976년 출범이후 각종 국제심포지엄, 산학연 심포지엄, 연구논문발표회, 기술 세미나 개최 등 적극적인 학술활동을 통하여 한국 고분자산업의 고급기술인력 확보와 산학연 협력체제의 활성화를 위하여 꾸준히 노력해왔습니다. 학회활동의 결실이라 볼 수 있는 국문지 ‘폴리머’는 SCI-E로, 영문지인 ‘Macromolecular Research’는 SCI로 선정되고 impact factor가 1.571(2004년)에 이르는 국제적인 수준의 논문을 발행하고 있음을 볼 때 부러움을 감출 수가 없습니다.

고분자물질은 우리 일상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어 우리의 삶을 풍요롭고 편리하게 하는데 큰 역할을 해왔습니다. 이에 고분자학회는 첨단 학문과 기술의 진보 및 발전을 도모하고, 학계와 관련업계의 대화의 장을 마련하여 관련학문 분야와의 정보교환 및 산학연 협력체제의 구축을 위한 구심점으로서의 역할을 훌륭히 수행함으로써 산업기술의 발전에 큰 공헌을 하였습니다. 특히 최근에는 IT, BT, NT 등 첨단과학과의 융합을 통하여 우리의 상상을 초월하는 기능을 가진 재료들이 개발되어 각 산업분야에 응용이 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타 첨단 분야에서도 고분자재료에 대한 관심과 의존성이 높아지면서 상호 유기적인 협력관계를 통해 국내 고분자과학과 기술의 발전에 큰 공헌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고분자물질은 섬유를 형성하는 기본재료로서 섬유산업의 발전에도 지대한 공헌을 해왔으며, 특히 고부가가치형 첨단 기능성 섬유가 요구되는 현대에 선진국형 산업구조로 전환하기위해서는 그 역할과 영향력이 점점 강화되고 있음을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또한 소비자의 니즈와 마켓이 증시되면서 고분자재료의 개발을 위해서도 섬유시장을 이해해야 하는 필요성이 부각됨에 따라 그 어느 때보다도 서로간의 긴밀한 상호교류가 절실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번 고분자학회 창립 30주년을 맞이하여 학회의 기반을 더욱 공고히 하고, 산학연의 교량의 역할을 충실히 하여 학문 및 국가 기술력 향상에 큰 도움이 될 것을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이제 지난 30년간 축적된 학술적 진보를 바탕으로 고분자학회가 명실상부한 첨단 과학 분야로서 국가경쟁력을 선도하는 도약의 계기가 되기를 진심으로 기대합니다.



김 기 진  
한국공업화학회 회장

존경하는 김봉식회장님과 한국고분자학회 회원여러분!

한국고분자학회가 금년도에 창립 30주년을 맞이함을 한국공업화학회를 대표하여 진심으로 축하를 올립니다.

지난 1976년 10월 한국과학원에서 초대회장님으로 성좌경 박사님을 모시고 200여명의 회원으로 창립된 학회가 30여 년이 지난 오늘날 회원 3,000여명의 국제적인 전문학회로 성장한 것을 축하드립니다. 더욱이 학회활동을 통하여 우리나라의 고분자 과학과 기술발전 그리고 인재 양성에 눈부신 업적을 남기고 세계 속의 기술 강국으로 국가의 위상을 높이신 임원 여러분들의 열정에 진심으로 경하를 드립니다.

과학과 기술의 발전만이 자국을 부강한 국가로 만들 수 있음은 새삼 논의할 필요도 없는 진리입니다. 선진국들은 보유한 막강한 기술력으로 세계경제와 현대의 산업구조를 지배하며 자국의 이익을 위하여 세계의 질서를 재편해 나가고 있습니다. 현대 산업에서 고분자 관련기술이 핵심적인 기술들 중의 하나임을 생각할 때 한국고분자학회의 역할은 어느 때 보다도 중요하고 막중한 책임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한국고분자학회는 춘·추계 연구논문발표회, 각종 국제 심포지엄, 고분자 신기술강좌, 고분자 대토론회, 고분자 아카데미, 산학연 여름 연합 심포지엄, 고분자 기기분석 강좌 등을 통하여 국내외 고분자 관련 과학자들의 명실상부한 학문교류의 장으로서 위상을 갖추었으며 학문발전에 크게 기여하고 있습니다. 또한, “폴리머”와 “Macromolecular Research” 그리고 “고분자과학과 기술” 등과 같은 국, 영문 전문 학술논문집과 기술지를 발간하여 고분자 관련 과학정보와 기술들이 체계적으로 보급되고 발전할 수 있는 기틀을 제공하는 사회적 기능도 훌륭히 수행해오고 있습니다. 더불어, 미래 지식사회의 우수한 인재를 양성하기 위하여 각종 기술 포상 정책들을 도입하여 관련 과학자들과 전문가들의 사기를 진작시키고 산·학·연이 접목된 새로운 기술들이 창출될 수 있도록 선두적인 노력도 경주 해오고 있습니다. 30년의 짧은 역사에도 불구하고 이와 같이 학문발전과 기술발전의 사회적 책임을 훌륭히 수행할 수 있도록 고분자 학회를 육성해 오신 여러 회장님과 임원 여러분의 열정과 노고에 진심으로 존경을 드립니다.

한국공업화학회는 고분자공업을 포함한 공업화학 전 분야에 걸친 학술 및 기술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한국고분자학회 역대 회장님들 중에 심정섭 회장님과 김점식 회장님은 한국공업화학회 회장을 역임하셨으며, 현 김봉식 회장님도 당 학회 부회장을 역임하시면서 한국공업화학회 발전에 크게 기여 하셨습니다. 그 외의 많은 임원들께서도 양 학회의 임원직을 맡으셔서 새로운 제도와 시스템을 교류하게 하여 서로의 발전에 많이 기여하여 왔습니다. 그래서 양 학회는 학문적인 면 외에도 인적인 면에서 서로에 대해서 가까운 이웃과 같은 친밀한 느낌을 갖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양학회가 심포지엄의 공동 개최 등을 통하여 더욱 긴밀히 협조하고 서로 발전하는 파트너쉽이 유지되기를 희망합니다.

다시 한 번 한국고분자학회의 창립 30주년을 한국공업화학회를 대표하여 진심으로 축하를 드리며, 학회의 무궁한 발전과 김봉식 회장님을 비롯한 모든 회원들 위에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하시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감사합니다.



김 철 영  
한국세라믹학회 회장

올해 한국 고분자학회 30주년을 맞이하면서 제가 한국 세라믹학회를 대표하여 축하의 말씀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1976년 한국고분자학회가 창립될 때는 우리나라의 산업화 노력이 조금씩 결실을 맺기 시작할 때였습니다. 이러한 때에 고분자를 전공하시는 분들께서 모여 학회를 조직하면서 우리나라 고분자 분야의 연구 및 산업발전에 커다란 획을 그었다고 생각합니다. 그 뒤 30년 동안 우리나라의 고분자 산업은 눈부시게 발전하였고 우리나라 산업 발전의 중추적 역할을 하였습니다. 이것이 모두 한국고분자학회에 속해있는 여러 연구자와 기술자들의 노력 때문이며 한편으로는 학회가 존재함으로써 이들 전문가들의 노력을 한 곳으로 모을 수 있었기 때문이라 생각합니다.

제가 고분자 재료에 대하여 깊은 지식은 없지만 많은 고분자가 다른 재료 특히 세라믹 재료와 복합재료를 만듦으로서 기능을 향상시키고 있습니다. 앞으로 여러 회원님께서 우리 세라믹 전공자들과 긴밀히 협조하면서 새롭고 다양한 기능을 나타내는 재료를 만들어 우리 생활이 더욱 풍요로워 지도록 하는데 큰 역할을 하였습니다.

지난 30년 동안 한국고분자학회가 세계의 우수 학회로 성장할 수 있도록 노력하신 역대 회장님들과 학회 회원들께 이번 30주년 생일을 다시 한번 축하드리며, 앞으로도 학회의 무궁한 발전이 있기를 기원합니다.



여 종 기  
LG화학 고문

한국고분자학회의 창립 30주년을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한국고분자학회는 1976년 고분자과학 및 고분자공학 분야의 전문 학회로 출범하여 물리학, 화학, 생물학, 공학 등 다양한 학문분야와 관련된 고분자 기반기술 및 응용기술 발전에 이바지 하여 왔습니다. 지난 30년간의 회원들의 노력과 국가적인 지원, 기업체의 후원에 힘입어 현재, 약 3000여명의 회원을 보유하고, 학술대회를 통해 연간 1600여 편의 논문을 발표하는 국내 핵심 학회로 성장하였습니다. 더구나 금번 창립 30주년을 기념하여 개최되는 IUPAC International Symposium on Advanced Polymer for Emerging Technologies 은 한국고분자학회가 명실상부한 국제적 학회로 다시 한번 거듭나는 행사가 되리라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고분자 소재 및 관련 기술 없이는 단 하루도 살아갈 수 없을 만큼 석유화학, 자동차, 가전, 의약품 등 광범위한 산업영역에 걸쳐있는 고분자 관련 기술이 인류의 일상생활에 미치는 영향은 지대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더 나아가 미래 첨단 산업인 차세대 Display, 대체 에너지, 신약, 신소재 산업에 핵심 소재를 개발하고 제공한다는 차원에서 그 중요성은 새삼 언급할 필요가 없을 것입니다. 또한, 우리나라 10대 성장 동력의 대부분이 고분자 분야에서 그 해결의 실마리를 찾아야 하는 것을 생각하면, 한국고분자학회가 국가 경쟁력 제고의 중심에 서 있다는 것을 쉽게 알 수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을 고려할 때, 한국고분자학회는 그 동안의 비약적인 성장을 발판으로 하여, 21세기 첨단 소재 개발 및 응용을 통한 기술 강국의 꿈을 실현하기 위해 첨단소재 분야의 학문적, 기술적 진보를 지속적으로 추구해야 하며, 혁신적, 긍정적, 국제적 사고를 갖는 우수 핵심 인재를 발굴, 배출하는데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이를 위해 산업계와 국가 차원의 전폭적인 지원도 계속되어야 할 것입니다. 새로운 미래 건설의 주체로서 한국고분자학회는, 젊은 고분자 학도들의 열정, 사명감, 그리고 끊임없는 도전정신을 바탕으로 우리나라의 미래기술 강국 실현을 위하여 더욱 발전하여 나아가길 기대합니다.

다시 한번 고분자학회의 30주년을 축하하며,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이 영 관

도레이세한 대표이사 사장

한국고분자학회 창립 제 30주년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한국고분자학회는 지난 수십년의 성장 속에서 국가 산업 발전과 그 궤를 함께하며 명실공히 국제적인 학술단체로 성장하였다고 자부합니다.

섬유 및 플라스틱, 고무산업 등이 뿌리를 내리던 시기에 태동한 고분자학회는 산업 전반에 없어서는 안될 핵심소재분야의 활발한 연구를 통해 학계, 산업계, 정부 간의 중추적 교량의 역할을 훌륭히 이행하면서 국가 산업발전에 기여해왔으며, 핵심인력 양성에도 공헌해왔습니다. 이후 산업이 벌크산업에서 전기전자분야, 반도체분야, 정보통신분야, LCD, PDP 등의 디스플레이분야, 우주 항공분야 등의 고기술,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전환하는데 발맞추어, 관련분야의 학문 및 기술발전의 보급에 앞장서 왔으며 고분자과학 및 고분자공업의 진흥에 이바지해왔습니다.

이제 장년을 맞은 고분자학회의 역할은 그 어느 때보다도 중차대합니다.

고분자 관련산업들이 첨단 고분자재료 및 고분자 나노신소재 등 고성능·고기능성 분야로 변모하고 있으며, NT, BT, IT, ET 분야 및 이들의 융합기술분야에서 고분자 신소재를 집중적으로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이들 분야에서의 활발한 연구와 산학협력이 이루어져야 날로 격화되어가는 글로벌 경쟁 속에서 시장지배력을 갖춘 산업, 원천기술을 확보한 기업과 관련과학 분야와 대학의 동반성장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따라서 한국고분자학회가 중심이 되어 학계-연구소-산업계-유관기관 간의 긴밀한 공동협력체제를 구축함으로써 시너지 효과를 창출하는데 선두로 나서야 할 것입니다.

학계는 기초기술 연구에 주력하고 이를 기업에 전수, 상용화를 추구하며 기업은 과감한 투자를 통해 제품 및 기술개발에 앞장서고, 유관기관은 각종 제도와 규제의 정비를 이루며, 아울러 국제적 능력을 갖춘 핵심인재 육성에는 공동의 노력을 기울여야 합니다.

주지하다시피 고분자학은 현재는 물론 미래의 인간생활과 과학발전을 위하여 산업, 과학, 의학 등 전 분야에 걸쳐 지속적이고 혁신적인 기술개발과 응용이 요구되는 핵심학문입니다.

학회 회원 뿐만 아니라 관련산업의 종사자 그리고 전공 학생들이 학문과 산업 발전에 기여한다는 자부심과 열정으로 각자의 소임에 임한다면 한국의 고분자학문과 관련 산업은 제2의 중흥기를 맞이하리라 확신합니다.

다시한번 한국 고분자학회의 창립 30주년을 기념하며, 학회와 회원 여러분의 무한한 성장과 발전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